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1월 8일(금)

친러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 대응상황 점검

-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공동대응, 큰 피해 없는 상황 -
- 국정원 및 행안·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 개최 -

국가안보실은 어제(11/7, 목)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국가정보원, 행정안전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관의 참석하에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침해 관련 대응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위협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

신 비서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에게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강화와 사이버 공격 발생시 조치사항을 전파하며 신속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정부는 일부 공공·민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(디도스)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에 대한 친 러시아 해커비스트 그룹의 사이버공격은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,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

이들의 공격은 민간 대상 해킹이나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 서비스거부(디도스)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,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친러 해커비스트들의 활동을 주시하면서, 관계기관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일부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 또는 단절된 바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.

향후,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따라 공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 <끝>